

# 디지털 날개 달고 재도약 포용금융 지역 동반성장



정일선 광주은행장



정일선 광주은행장(가운데)이 취임 직후 지역 소재 제조기업들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AI 전환·체질 개선·지역 상생 '혁신의 축' 제시  
혁신의 일상화... 신성장전략본부·AI혁신부 신설  
변화 통한 성장 동력 모색... 디지털화 업무 효율 제고  
지역 밀착·수도권 기업금융 확장 '투 트랙' 영업 전략  
지역 대표은행 정체성 재확립하고 상생에 집중

광주은행이 정일선 제15대 광주은행장 취임과 함께 날아갈 커지는 금융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 지역과의 상생, 지역 경기 활성화 등 주요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광주은행은 최근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인공지능(AI) 전환'과 더불어 '실행 중심 체질 개선', '지역 상생'을 광주은행 혁신의 축으로 내세우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혁신의 일상화-끊임없는 변화 통한 성장 동력 모색=정일선 은행장은 새해 시작과 함께 지난 1월 2일 취임식에서 "변화와 혁신의 DNA로 광주은행의 새로운 도약을 일궈내겠다"고 밝히며 불확실한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광주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불가 상승 등 경제 둔화, 디지털 전환을 위한 경쟁 심화 등 광주은행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가운데 기존의 방어적 태도가 아닌 '공격적 전환'에 나서겠다는 신임 은행장의 포부로 해석된다.

정 은행장은 특히 미래 발전을 위한 혁신의 방향에 있어서도 페이탈 창업자 피터 딜의 표현인 '제로 투 원(Zero to One)'에 빗대며 "세상에 없는 것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과거에 성공했던 낡은 혁신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현재의 혁신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판단을 기반으로 조직 자체에 '혁신의 DNA'를 심고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는 광주은행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AI 혁신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업무 효율화=광주은행은 올해부터 가장 기본적인 업무 효율성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실제 정 은행장은 취임과 함께 "시간만 낭비하는 가짜 업무와 중복되는 절차들을 대폭 줄여 진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하겠다"며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이는 금융권 전반이 금융 디지털화 경쟁에 뛰어들며 조직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보고와 회의 중심의 불필요한 절차들이 대폭 늘어 현장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단순한 시간 단축성 업무 효율화가 아닌 핵심 성과에 자원을 재배치함으로써 고객·시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민첩한 은행'으로 은행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의지로 해석된다.

'AI 혁신' 및 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화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게 정은

행장의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전략본부와 AI혁신부를 신설하고, 핀테크 협업 확대와 글로벌 시장 개척 등을 통해 신성장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은행에게는 적극적인 고객 유치 등을 위해 지점망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AI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AI 혁신은 광주은행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광주·전남과 수도권 '투 트랙' 영업 전략-혁신산업에는 '성장 파트너'=광주은행은 기반 지역인 광주·전남과 수도권의 영업 전략을 각각 '지역 밀착'과 '기업금융 확장'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에서 센터형 영업을 강화하고 기업 대상 금융활동을 확장하는 등 수급 기반을 넓히는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거점화·디지털 라운지 등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접근성을 높여 비용 구조를 합리화하는 지역 밀착형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 핵심 사업 부문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는 등 채널 전략과 인력 전략을 묶어 운영 시너지도 보일 계획이다. 또 광주의 AI, 미래자동차 등 지역 기반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생산적 금융'의 고도화도 강조했다. 단순한 자금 공급을 위한 금융기관이 아닌 지역 산업 생태계의 성장 구실을 먼저 발견해 금융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금융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담고 있다.

◇함께 성장하는 광주은행-지역 상생의 정체성 확립=광주은행은 올해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지역과의 상생 협력에도 집중한다.

광주은행은 1968년 광주시 동구 충장로 5가에 설립된 뒤 지난 58년 동안 '지역 경제의 동반자'로서 지역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왔다. 광주은행은 새로 취임한 정 은행장 체제에서도 광주·전남 대표 은행의 기치를 지켜 나갈 예정이다. 정 은행장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이라는 타이틀은 누가 붙여준 것이 아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광주은행의 정체성"이라며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명을 강조했다.

광주은행은 지역 상생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며, 지역민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실리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단순 기부가 아닌 이들의 경제 회복력과 자립 기반을 돕는 방향으로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범위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은행은 노사관계에서도 '상생'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제1대 노동조합과 함께 노사 간 갈등 구조의 현안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 상생 TF를 구성하는 등 성숙한 노사문화를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은행은 명확한 성장 방향성과 확고한 기반, 이를 현실로 만들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앞서 제시한 혁신의 실질적인 실행 정도가 올해 성적표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을 '새로운 도전의 원년'으로 삼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 실행으로 증명하는 조직,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으로 다음 단계의 경쟁력을 구축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강기정(오른쪽) 광주시장과 정일선 광주은행장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